Fixed Income

Fixed Income Strategist 공동락
dongrak.kong@daishin.com

Fed 신임 의장 취임 이후 美 기준금리 인하 재개 전망

-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 5월 취임 이후 기준금리 인하 재개 전망
- 공급 혁신으로 인플레 부담 줄어. 매파였지만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 지지
- "유동성 축소" 견해, 그러나 국채 물량 부담에 '트럼프 코드' 맞출 것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 5월 취임 이후 기준금리 인하 재개 예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Fed) 의장으로 케빈 워시(Kevin Warsh) 전 연준 이사를 공식 지명했다. 워시 지명자는 제롬 파월 현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5월에 취임한다. 이에 1월 FOMC를 통해 중단됐던 기준금리 인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며, 당사도 그 시기를 2분기 이후로 예측하고 있다.

공급 측면 혁신(AI 등)으로 인플레이션 부담 줄어. 인하를 지지하는 입장

워시의 지명은 우선 금리 인하를 둘러싼 논란을 크게 해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은 2024년 기준금리를 인하하기(인하 폭 100bp) 시작해 2025년에는 총 75bp 기준금리를 더 내렸다. 하지만 연속적인 인하가 아닌 중간에 휴지기를 둔 인하 사이클을 이어감에 따라 백악관과의 갈등이 상당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 간의 감정적인 대립까지 더해지며 시장이 인식하는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스트레스와 긴장의 정도는 매우 높았다. 결국 이번 후임 연준 의장 선정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주목했을 것은 아마도 자신이 요구하는 인하 주장을 얼마나 잘 수용할 지 여부였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고려할 때 워시가 연준 의장에 취임한 이후 인하 재개는 충분히 예견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워시 자신 역시 이미 공급 측면의 혁신(AI 등)을 근거로 인플레이션 부담이 낮아지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금리 인하 주장에 충분히 동조하고 있다는 점도 취임 이후 인하 재개를 예상하는 논거다. 이에 당사의 올해 연말 미국 기준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은 3.25%(상한 기준)으로,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25bp씩 2회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동성에 대한 의견은 의문. 국채 수급 불안 커진 상황에서 주목해야

기준금리 결정에 비해 시중 유동성에 대한 워시 지명자의 견해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특히 과거 매파적인 인물이란 평가를 받은 계기가 적극적인 양적긴축(QT)을 주장했기 때문인데, 해당 이슈에 대한 워시 지명자의 견해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당사가 이처럼 유동성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현재 미국 등 글로벌 채권시장이 국채 발행 물량 등 수급 이슈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상당수 국가들은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국채 금리 특히, 장기물 금리는 제대로 하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기 별로 오히려 상승을 불안해 할 정도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 여부와 함께 정책 당국의 수급 문제에 대한 워시 지명자의 대응 역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됩니다.

결국 채권 수급 불안에 유동성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 맞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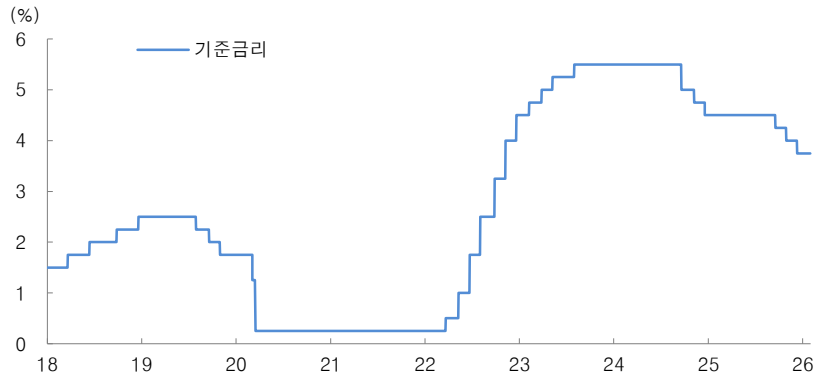
그러나 당사는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워시 지명자의 유동성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미 시장금리 동향에 수급 이슈가 크게 반영되고 특히나 국채 발행 물량 증가가 시장금리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금융시장 전체가 이미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모기지 금리 안정을 위해 2,000억달러 규모의 MBS 매입을 패니메이, 프레디맥에 지시한 바 있는데, 시장금리 안정을 위해 금리 인하 외에도 수급 대응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은 새삼 확인케 하는 대목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워시 지명자의 유동성 관련 입장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채권시장의 경우 스티프너 압력이 다소 커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그림 1. **미국 기준금리: 2026 년 1 월 3.75%로 동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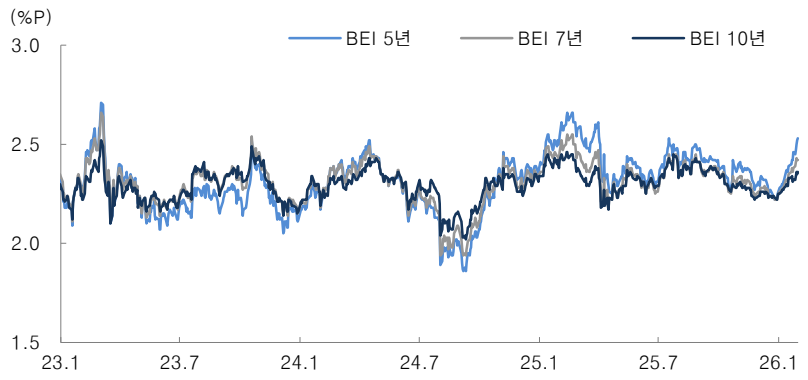


자료: Fed,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미국 기준금리와 TB 2 년, 10 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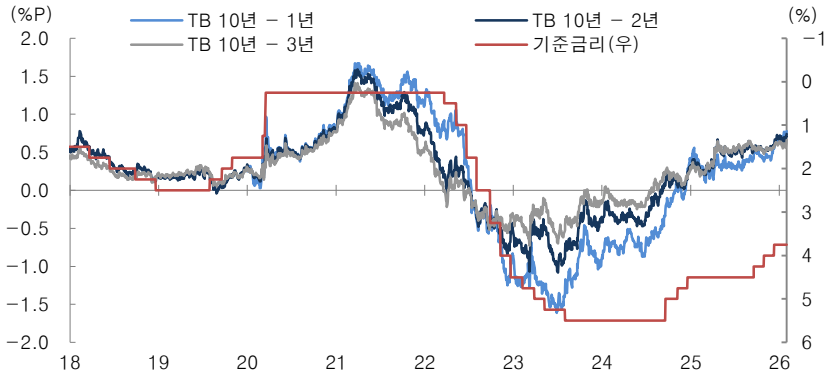
자료: Fed, US Treasury,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BE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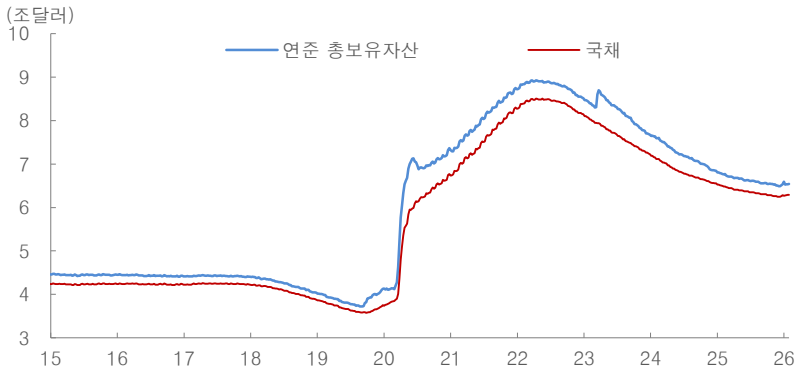
자료: US Treasury,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미국 기준금리와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자료: Fed, US Treasury,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미국 연준 보유 총자산과 국채



자료: Fed,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공동락)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